

‘2018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주제영상 -혼자가 아닌, 함께 갑니다

1. 개요

일시 : 2018년 6월 25일 월요일

장소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서울여성프라자 2층 ‘성평등도서관 여기’

주제 : 최근 각 분야에서 터져나온 성폭력/성차별 문제와 미투 운동의 흐름을 담아내며
‘함께’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2. 현장 큐시트

시간	내용
8:30	제작팀 집결
9:40	박하은, 오예진 님 도착
10:00 - 10:30	박하은, 오예진 님 인터뷰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 위원회)
10:10	서지현 검사님 도착
10:30 - 11:00	서지현 검사님 인터뷰
10:40	신희주 감독님 도착
11:00 - 11:30	출연자 전체 이미지 컷 촬영 : 슬로건 “평등을 일상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11:30 - 12:00	신희주 감독님 인터뷰 (여성문화예술연합 WACA)

3. 예상 이미지컷



‘2018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주제영상 인터뷰
-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 위원회’ 박하은, 오예진 님

일시 : 2018. 6. 25(월) 오전 10시

장소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서울여성프라자 2층 ‘성평등도서관 여기’

진행 : 작가 이세연(010-4104-8969)

1.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와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 위원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용화여고의 미투 운동은 졸업생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졸업 후 몇 년이 지난 시점에서 어떤 계기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나요.
3. 졸업생들의 용기 있는 문제제기 이후, 재학생들은 창문에 포스트잇을 붙이며 화답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게 이어지게 됐나요. 재학생들의 연대를 지켜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4. 미투 이후 여러 활동을 이어가시면서 재학생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5. ‘용화여고 미투’ 이후 어떤 반응들을 마주하셨나요. 긍정적인 반응도,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덧, 재학생들이 포스트잇을 붙인 후 학교 내부에서 어떤 반응을 겪었는지 전해들으신 바가 있나요?)
6. 용화여고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은 다른 여러 학교의 스쿨미투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겪은 비슷한 경험에 대한 고발이 폭발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학교에서 스쿨미투 운동이 이어지는 것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7. 인터뷰가 포함된 영상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18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학교 내부의, 더 나아가 한국 사회의 성평등한 변화를 위해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8. 용화여고에서 시작된 스쿨미투 운동은 크고 작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살아온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회로 나온 많은 여성들에게 커다란 용기와 힘이 되어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용기를 내 스스로의 이야기를 말하고, 기록하고, 연대하기를 멈추지 않는 동료 분들께 남기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8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주제영상 인터뷰
- 서지현 검사님

일시 : 2018. 6. 25(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서울여성프라자 2층 ‘성평등도서관 여기’

진행 : 작가 이세연(010-4104-8969)

1.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 첫 인터뷰를 하신 후 반 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 긴 싸움을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그동안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나요.
3. 검사님의 인터뷰 이후, 한국 사회의 각 분야에서 미투 운동이 터져나오는 것을 지켜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크고 작은 비슷한 경험에 대한 고발이 폭발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4.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인의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리고 인터뷰에 나서기까지, 어려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계기가 있다면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심적으로 힘든 일임에도 검사님의 이야기를 계속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5. 검사님의 이야기를 ‘82년생 김지영’과 같이 소설 형식으로 작성하신 글을 읽었습니다. 많은 인터뷰에서 사건 자체에 집중했던 것과는 달리, 여성으로 태어나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검사님의 이야기가 담겨있어 인상깊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쓰셨는지,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태어나 살아간다는 것에 어떤 의미를 두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6. 미투 운동은 자신의 피해 경험을 이야기하며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용기를 내 발언한 당사자가 ‘피해자’라는 고정된 위치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혹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7. 인터뷰가 포함된 영상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18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한국 사회의 성평등한 변화를 위해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8. 검사님의 인터뷰는 크고 작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살아온 많은 여성들에게 커다란 용기와 힘이 되어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용기를 내 스스로의 이야기를 말하고, 기록하고, 연대하기를 멈추지 않는 동료 분들께 남기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